

50년전부터 시행...수익금 사회 회향

템플스테이 어떻게 되거나



1. 시행, 두 달 앞으로...
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3.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용어도 없으며, 사람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등지에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일본 불교계가 월드컵과 관련한 준비를 100% 갖추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일본은 1950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무너진 사찰을 복원하면서 신도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별도의 준비 없이 언제나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템플스테이를 일본은 이미 5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의 사람들은 대부분 경내에 '신도회관'의 역할을 하는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춰 국내외를 막론한 일반인과 스님들에게 일정한 숙박비(1박시 5000~1만5000엔)를 받고 사찰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 4~5시 예불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다도, 사찰 수련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정토종 본산 증상사, 천태종 본산 연력사, 조동종 본산 총지사, 일련종 본산 본문사 등 큰 사찰들은 300여 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 등 철저한 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하현(滋賀縣)에 소재한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延曆寺)는 '연력사 회관'에 60개의 객실과 회의실, 다실 등을 갖추고 좌선지관(坐禪止觀), 깍다(喫茶), 정진(精進)요리, 국보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교토에 소재한 정토종 총

내산책, 정원 감상, 사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신구산(信貴山) 총본산의 경우 세 곳의 숙박시설을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휴양 및 은둔, 기도, 법문, 사경을 위주로 운영하는 옥장원(玉蔵院), 무병장수, 사업성취 등을 발원하는 기도중심의 성복원(成福院), 사찰 정원과 전통요리를 감상할 수 있는

"이는 모든 것을 신도와 방문객들의 편의 위주로 사찰을 꾸민 오랜 전통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교수에 따르면 모든 편의시설이 철저하게 신도와 내방객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본 불교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자리잡힌 이러한 전통은 신도는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사찰의 이미지를



◀일본 정토종 총본산 지은원 경내에 있는 화순회관. 다목적 홀 등 호텔급 편의시설을 갖춘 회관으로 불자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사찰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사찰에 호텔급 신도회관"

예불·다도·참선 등 상시 운영

다목적홀·대회의실 갖춘 곳도

예약제 철저·4개국어로 홍보

본산 지은원(知恩院)도 435석의 다목적홀과 180석의 대회의실, 갤러리, 매점 등을 갖춘 화순회관을 숙박 및 연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도근현(鳥根縣) 일전사(一畑寺)는 일련산장에서 각종 단체와 기업, 중등학교에서 온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산, 법문, 좌선, 식사작법, 경

천수원(千手院) 등으로 특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 북해도에서부터 오사카까지 사찰의 조경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온 홍광표 동국대(조경학과) 교수는 "일본의 사찰들은 대부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급의 신도회관을 갖추고 있다"며,

숙박시설을 갖춘 사찰들은 지역 관광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배낭 여행자들까지 묵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50여개소 이상의 사찰 숙박시설들이 일본 유호호텔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다.

사찰 홍보도 뛰어난 인터넷을 통

한 예약은 물론 사찰 홍보 팸플릿을 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제작해 사찰방문 기념으로 무료배포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국제관광진흥회(서울사무소=http://www.jnto.go.jp/ko/rear/)와 각 지자체를 통한 철저한 홍보 및 예약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1964년 설립된 일본국제관광진흥회(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는 세계 각국 주요도시에서 14곳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여행객 안내 센터 운영, 관광객 유치시설의 일괄 관리, 국제회의의 유치 등 광범위한 유치활동을 펼쳐 왔다.

관광전문가들은 우리의 템플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숙박 예약체계의 확립과 외국인의 정서에 맞는 쾌적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꼭 짜여진 프로그램보다는 자연을 관조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롭게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신도 및 방문객 위주의 일본 사찰 숙박의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번 2002 월드컵 템플스테이 사업을 계기로 상설적인 사찰 숙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박진용 사무국장은 "일본의 사찰들은 거의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다.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보시하는 마음으로 숙박비를 내고, 사찰도 이를 삼보정재로서 사회복지와 포교를 위해 회향하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의 상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선각종 월드컵 성공기원 가두캠페인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3월 22일 대구시내 일원에서 2002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선각종 월드컵 승려홍보단과 영·호남 불자 5백여명은 대구 국제보상공원 앞에서 대구백화점 광장까지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승려홍보단 소속 스님들이 행진하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부장

동울산 반야장학회 10명에 장학금



동울산사암연합회 반야장학회(회장 동패)는 3월 26일 대원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반야장학회는 경제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애로를 겪고있는 학생들에게 3년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내 7개 중학교에서 10명의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1인당 한 학기에 3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수년간 스님들이 탁발시주와 일일 찻집 행사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다. 김재경 기자

달마동상 중국서 이운 와우정사에 봉안



열반종총무원장 해운은 선종의 초조(初祖) 달마대사의 동상(坐像)을 중국에서 이운, 3월 21일 용인 와우정사에 봉안했다. 높이 3m 입상(立像)인 이 달마상은 열반종과 중국불교협회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중국 하남성에서 조성돼 이운된 것이다. 해운 총무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달마스님을 그린 선화는 많이 있으나 등신상은 천경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달마대사동상 봉안을 계기로 더욱 선수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 반대"

범어사 내원사 통도사 공동대책위 결성

고속철 관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정산과 천성산의 범어사(주지 성오), 내원사(주지 혜동), 통도사(주지 현만)가 공동대책위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3월22일 내원사에서 모임을 가진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범어사 통도사 내원사 전 사부대중의 이름으로 경부고속철도 공사 2단계 대구-부산간 신설 노선을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공동대응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실무준비위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범어사에 두기로 했다. 범어사 실무위원을 맡은 범어사 총무국장 도관스님은 "환경관련 법률 번 호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서명운동, 건교부 장관, 공단 이사장 항의 방문, 생태환경 평가 공동조사, 신도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무량보존 정기총회

대한불교 무량보존종(총무원장 정암)은 3월 26일 서울 종로구 홍지동 소재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 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1년도 결산액 1억8천5백만원과 올해 예산 2억1천3백만원을 승인 통과시켰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새 총회장에 대광스님(경주 원해사) 감찰원장에 혜천스님(전남 남주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경숙 기자

게시판

- ▲교육생 모집=공정사회복지관은 30~60대 초반의 주부 2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 단기 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4월 8~12일까지. (051)363-2063
- ▲청소년 동아리 공모전=양정청소년수련관은 부산 지역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2002년 청소년 동아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된 동아리에는 운영금이 전달. 응모기간은 4월 13일 까지. (051)868-0750
- ▲수강생 모집=양정청소년수련관은 4월 상설강좌와 청소년, 어린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고전무용, 웰스, 탁구교실, 컴퓨터, 한자, 노래교실, 만화, 청소년 합창단, 양화제작 등. (051)868-0750
- ▲지도교사 모집=용호사회복지관은 특수교육 전공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051)628-6737
- ▲월드컵 친절교육=관음사·영남불교대학은 6일 오후 2시 사찰 3층 법당에서 2002년 월드컵 및 밝은 도량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월드컵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김세환 씨의 강연이 이어진다. (054)472-6268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불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853-6 새싹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高佛총림법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